

환경요인의 복합효과에 관한 제 2 차 국제회의 참관기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승 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일본 Kanazawa 에서 열린 환경요인의 복합효과에 관한 국제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mbined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에 다녀왔다.

이 국제회의는 날짜로 치자면 4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일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회의이었는데, 그 내용이나 진행은 아름다운 주변의 입지조건과 후한 인심등에 있어 필자로서는 가장 인상 깊은 국제회의의 하나였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나라는 24개국,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 참석자는 73명이고, 일본사람을 합한 총 참석자는 200명 가량이었는데 포스타 셋 손 21제를 포함하여 모두 78개의 연제가 발표되는 성황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필자와 경상도의 홍대영씨가 참석하였으며, 필자가 「석탄의 유리규산 함유량과 진폐증의 발생」(Silica content of coal and development of pneumoconiosis)이라는 제목하에 구연 발표를 하였다. 이것은 총래 탄광에 기중 분진의 허용농도를 설정함에 있어 석탄의 유리규산함유량이 WHO 7%, ACGIH 5%, 일본산업위생학회 10% 한국노동부 30% 등 일정수준 이하일 때에는 규

산분진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고정치를 가지고 허용농도로 삼아왔던 것인데, 이정도 이하의 유리규산을 함유하는 석탄분진의 경우일지라도 그 함유량에 따라 진폐증의 발생이나 진행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석탄분진의 고정될 허용농도를 규정하기 위한 유리규산 함유량의 수준은 보다 낮추어야겠다는 취지의 발표이었던 바 여러 질문이 나왔다.

외국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과반수가 물리적인 요인 특히 소음과 진동을 포함한 환경요인들의 복합효과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미국의 Hamernik 교수 등이 연속음과 충격음의 상호작용을, Austria의 Groll-Knap 교수 등이 육체부하와 소음의 복합효과를, Finland의 Manninen 교수가 소음·진동·고온이 흡몬·심장기능·청력에 미치는 영향을 소련의 Suvorov 교수가 전신 및 국소진동의 복합효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이외에 개최지인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나라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많이 나왔다.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임업이 번창한 나라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라는 하여도 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는 듯 하여 인상 깊은 일이었다.

화학적인 환경요인들에 관해서도 Groll-Kn-

app 교수들이 중추신경계에 대한 NO와 CO의 복합효과에 관해 논하였고, 서독의 Jansen 교수가 중금속분진과 그외의 stress 요인이 코발트 부하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Kono 박사 등이 ethylene - tetrafluoroethylene 과 copolymer pyrolyzate의 복합독성을 논하는 등 물리적 환경요인의 경우에 못지 않는 관심을 보였다.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총체적으로 실감한 일의 하나는 산업보건분야의 연구의 방향이 적어도 외국에서는 꽤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산업환경의 개선으로 전형적인 직업병의 발생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현실하에서 저농도의 독성물질의 복합독성이라던지 그동안 비교적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던 물리적인 요인이라던지 하는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진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보자면 유해요인이 단독으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니 만큼 환경의 복합요인을 이제와서라도 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보다 현실적인 감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학회 진행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회기중간에 한

오후를 떼어내서 관광에 돌린 일이었다. 딱딱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쉬운 학회라는 모임의 흐름을 누그러트리는데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 학회 행사 가운데에 그러한 여유를 발견한 것은 하나의 놀라움이었고 또한 즐거움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저녁마다 베풀어지는 인심 좋은 접대는 보기드문 토박이의 민속공연과 더불어 이 학술대회를 축제 분위기로 충만케 하였다.

Kanazawa는 북으로 동해를 바라보고 남으로 백산연봉을 낀 일본의 고도이다. 동경이나 대만에 비하면 크기에 있어 보잘 것 없다 하겠으나 수세기를 두고 일본 굴지의 대도시 노릇을 하여 온데다가 제 2차대전의 피해마저 입은 것이 없어서 불만한 일본의 전통문화가 적지 않게 보존되어 있었다. 더구나 남쪽에 위치한 백산(白山)과 그 주변은 가히 절경이고 미경이라 할만한 곳이었다. 그러나 오지였다고도 할 수 있는 이 고장에도 고속도로가 통하게 되고 근대화의 물결이 뻗치고 보니 이번의 국제회의가 개최된 Kanazawa International Hotel은 신개발지 끝에 세워진 새로운 고층건물이었다. *

* 유모어人生 *

女子의 마음

걸리버旅行記로 유명한 슈프트는 한때 아일랜드에서 聖職者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어떤 중년부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하곤 하는데 이것이 죄일까요?」

슈프트 가라사대

「아니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해입니다.」